흑산도 무심사지 면모 확인된다

불교문화재硏, 흑산도 무심사지 재발굴 추진

조사되지 못한 사역의 동쪽
4월부터 시 · 발굴조사 시작
사지 보존 · 정비 계획 수립
"해상 교류 살필 중요 유적"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15년 조사 당시 흑산도 무심사지 발굴 현장 모습.

다산 정약용의 형인 손암 정약전은 가톨릭 박해로 흑산도 유배를 갔고, 이곳에서 한국 최초 어류도감인 〈자산어보〉를 저술한다. 이처럼 흑산도는 조선시대에는 유배의 섬이었지만, 고대에는 해상교역의 중심지였다. 일본 고승 자각대사 엔닌(圓仁)은 〈입당구법순례행기〉에서 귀국길 여정 중에 들었던 흑산도를 기록으로 남겼고, 1123년 고려를 방문한 송나라 사신 서긍이 쓴 〈고려도경〉에는 흑산도에 사신선이 머물렀던 관사가 있었다고 기록했다.

기록에 따라 삼국~고려시대에는 중국을 가기 위해 반드시 흑산도를 거쳤고, 이를 통해 흑산도가 중국과 한반도 해상교역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까지 번성했던 흑산도에는 사찰도 존재했다. 바로 무심사(无心寺)다.

무심사의 존재는 1999년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에서 상라산성을 조사하던 중 '무심사선원(无心寺禪院)' 명 기와를 수습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신안군에서 2009년 목포대 박물관에 시굴조사를 의뢰해 진행했고, 이를 통해 무심사지 건물지가 확인됐다. 2015, 2016년에는 건물지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학술조사가 전남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됐다. 발굴조사를 통해 통일신라부터 고려시대까지 다양한 유물이 출토됐고, 건물지 · 수혈 등도 확인됐다. 이를 통해 무심사의 창건시기가 통일신라 말기인 9세기 후반이며, 11세기 중반부터 12세기 중 · 후반까지 전성기를 누리다가 14세기 폐사됐음을 추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무심사가 어떤 이유로 흑산도에 세워졌고, 어떤 활동을 하다가 폐사하게 됐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 무심사지 보존 · 활용에 대한 정확한 계획 수립이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가 흑산도 무심사지 재발굴에 들어간다. 4월 중순부터 진행되는 무심사지 발굴조사는 무심사지 사역의 명확한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시굴조사 형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지역은 신안군 흑산면 진리 724-1 일대 1400㎡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무심사지는 주변 상라산성, 관아지, 제사유적 등과 함께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 말까지 흑산도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유구이며, 한국과 중국 사이의 활발한 국제 교류상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연구소의 조사는 종합적인 발굴조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학술조사로 기존 조사되지 않은 사역 동쪽 지역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엄사 주지에 덕문 스님 만장일치 추대

3월 19일 산중총회서…미얀마 민주화지지 결의도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주지 후보에 덕문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3월 19일 화엄원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총 189명의 구성원 가운데 100명이 참석해, 단일 후보로 등록한 덕문 스님을 차기 주지 후보로 만장일치 추대했다.

덕문 스님은 2017년에 이어 선출됐다. 덕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화엄사의 위상을 한국불교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4년 전에 다 이루지 못한 약속을 실천할 것이다. 승가복지, 광주포교당, 지역사회에서 불교를 일으키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덕문 스님은 종열 스님을 은사로 화엄사에 출가해 1985년 수계했다. 1989년 통도사 선원에서 안거를 시작한 이후 7안거를 성만했다. 총무원 호법부장, 조계종 직영사찰 보문사 · 선본사 재산관리인, 조계종 중앙박물관장, 동화사 주지, 동국대 감사, 13 · 14 · 15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사단법인 굿윌드자선은행 대표, 정광학원 이사장, 동국대 이사, BBS광주불교방송 운영위원장, 화엄사 주지를 맡고 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사진 왼쪽두번째)이 후보당선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날 산중총회는 회의 후 교구본사 최초로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한다' 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미얀마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화엄사 대중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화엄사는 결의문을 통해 "미얀마 군부의 시민들에 대한 유혈 무력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한다"며 "불살생을 계율의 첫 번째로 삼고 있는 불교국가 미얀마의 군부는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폭력과 살생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엄사 대중들은 "미얀마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한다. 미얀마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불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주서원시니어클럽 전주시설공단과 MOU

금산사복지재단(이사장 일원)이 위탁운영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전주서원시니어클럽과 전주시설공단이 노인일자리사업 '꽃길활성화 (꽃가꾸기시니어)' 업무협약을 맺었다.

꽃길 활성화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낙후된 거리에서 수거한 폐 화분과 꽃을 활용, 꽃밭을 가꾸는 사업이다. 2021년에는 총 80명의 어르신이 참여했다.

이번 전주시설관리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전주서원시니어클럽은 활동 구역을 넓혀 덕진공원 등에서도 해당 사업을 진행한다.

전주서원시니어클럽 김경옥 사무국장은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서원시니어클럽 관장 우림 스님은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어려운 이웃 위한 9년간 자비쌀 전달

진안 마이산 탑사, 쌍봉사 90가구에 자비의 쌀 후원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와 쌍봉사(주지 보경)가 지역의 나눔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자비의 쌀을 전달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3월 23일 마이산 탑사는 자비의 쌀 50포대(1000kg), 쌍봉사는 40포대(800kg)를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센터장 최주연)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쌀은 지역 자원봉사단장들을 통해 직접 전달됐다.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는 9년간 불단에 불자들이 공양한 공양미를 모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백미나눔 전달식에는 진성 스님과 보경 스님, 전춘성 진안군수, 김광수 진안군의장을 비롯해 최주연 자원봉사센터장 등 지역 자원봉사센터장들이 참석했다.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소임을 맡고 있는 진성 스님은 "불자들이 마이산 탑사 불전에 올린 소원공양미를 나눔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며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도 "올해로 9년째 자비의 쌀 나눔을 후원하고 있다"며 "모두 힘든 시기에 쌀 한 톨 한 톨이 작은 희망이 되고 건강 지킴이가 되어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9년째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진성 스님과 보경 스님께 감사드린다"며 "후원받은 사랑의 백미는 지역 내 소외계층에 잘 전달돼 두 분 스님과 불자들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신축년 방생법회 봉행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 신축년 방생법회가 선운사 경내 도솔제에서 봉행됐다. 3월 20일 선운사 경내 도솔제에서 열린 이날 방생법회는 천수경 봉독, 용왕청, 방생의식, 108참회의 순으로 이어졌다.

선운사 대중 스님들과 신도회 등 50여 명이 동참한 이날 방생법회서 동참한 불자들은 조속한 코로나 극복과 평화를 발원했다. 방생 후 선운사 대웅보전으로 자리를 옮긴 스님들과 불자들은 108배 참회법회를 통해 최근 내장사 화재로 국민들과 불자들에게 충격을 준 것에 대해 참회했다.

선운사 수찬 스님은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해 자연환경 파괴가 심각한 지금



방생법회를 통해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한국불교조계종승가회 성금 전달

대한국불교조계종승가회가 선천성심장병 환자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대한국불교조계종승가회(총무원장 성보)는 3월 24일 창원 불광사 대법당에서 선천성심장병 성금전달식을 봉행했다.

전달식에는 불광사 성보 스님, 약불사 보해 스님, 묘엄정사 덕운 스님 및 김인호 사랑실은 교통봉사단 지대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총무원장 성보 스님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십시일반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큰 희망과 소망이 전달되어 쾌유와 건강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대한국불교조계종승가회는 3월24일 창원 불광사 대법당에서 선천성심장병 성금전달식을 봉행했다.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자비 나눔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종정 법운, 총본산 동명사)은 3월 22일 경북 칠곡군 약목면 사무소(면장 이종구)에 라면 50박스와 휴지 30롤 등을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지역 불우이웃들에게 전해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과 원로회의 의원 홍인 스님, 수덕 스님, 동화 스님, 강기철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스님들이 라면과 휴지 등을 전달하고 있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연등승하강 장치기술(신형)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